

# 노년기 여성의 자아통합감과 인구통계적 특성, 건강 및 외모행동과의 관련 연구

## Ego Integrity, Appearance Behavior, Health, and Demographic Variables of Elderly Women

진주국제대학교 패션액세서리학과  
전임강사 이 은 실  
진주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전임강사 안 성 아

Department of Fashion Accessory,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Lee, Eun-Sil*

Department of Beauty Desig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Ahn, Seong-Ah*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appearance behavior and ego integrity of elderly women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health, and to examine how the ego integrity of elderly women was influenced by appearance behavior, health,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subjects were 117 elderly women(aged 60 to 70) in Jinju, Korea who were interviewed face-to face with a survey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earance adornment and ego integrity (wise living and attitude toward life) according to age. After controlling for 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earance interest, makeup, and ego integrity according to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go integrity (attitude toward life)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spouse or mat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earance interest, makeup, and ego integrity according to health.

Health and educ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the present living. Health, age(-), and appearance behavi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wise living. Health, age(-), and educ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life. Education and healt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ppearance behavior.

The present findings indicate that health state and appearance behavior, such as appearance interest and makeu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go integrity of elderly women. On the whole, the ego integrity of elderly wome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health state, education, and appearance behavior.

**주제어(Key Words):** 건강(health), 외모관심(appearance interest), 화장(makeup), 자아통합감(ego integrity)

##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와 의로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수반되는 다양한 노인문제는 최근 각 사회의 관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인간은 노화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노년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년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노인건강, 주택, 거주, 여가활동,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주제들로서(김안젤라, 2004), 노년기의 삶의 질이나 노인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시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을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지식으로 기인하고자 한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이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이며(Havighurst, 1977: 139-148), 노화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자아통합감으로 측정되어지고 있다. Erickson (1963)은 심리사회 발달이론에서 노년기에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상태를 자아통합감의 달성이라고 보았다. 자아통합감은 성격,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하여 연구되어졌고(김옥현, 1998; 김정순, 1988; 류정란, 2002; 박민애, 2001), 미술치료나 인터넷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아

통합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하였다(김안젤라, 2004; 양영순, 2004). 또한 많은 연구들이 자아통합감의 내용과 유사한 생활만족도의 변인으로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권중돈, 조주연, 2000; 김미혜, 유영주, 1999; 김진구, 이유허, 1995).

한편 노화에 따른 신체상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사회적 역할 및 활동을 줄어들게 한다(박재호, 1984). 그러나 현대는 과거보다 노인으로 인지되는 연령이 차츰 높아지고 있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도 변화되고 있으며, 노인 스스로의 사회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편이다. 사회활동에서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소외감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에 필요한 도구로서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임치경, 1984). 오늘날 노년기의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의복을 포함한 외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 및 신체적 건강은 질적인 삶과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순, 1988; 배영숙, 1993). 또한 사회활동이 많고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정희용, 1987), 노인 여성의 외모관심은 자신감 및 자기가치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이명희, 이은실, 1997). 이렇듯 노년기의 외모관심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여 사회적 활동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 여성의 자아통합감에 외모행동변인 및 건강상태, 외모행동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여성이 정

협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노인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 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노년기 여성의 건강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 통합감의 차이를 조사한다

셋째, 노년기 여성의 자아통합감에 인구통계적 변인, 건강, 외모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통합감

노인이라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그 개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복합적인 개념이다. Birren 과 Cunnigam(1989)은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며,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의 조직기능이 연령의 증가에 의해 자신의 조절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의 역할과 기질이 감소하며,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적응력과 정서적인 면이 변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환갑을 지난 사람 즉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고(김정순, 1988), 노인 스스로도 60세를 노령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전재일, 1979; 한국궤립조사연구소, 1984; 한국여성개발원, 198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노년기를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자아통합감은 반대되는 개념이 '절망'이며, 60대 이후의 노년기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 1993: 239). 즉 자아통합감이란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이룩한 일에 대한 만족과 겸허하지만 확고하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는 것이다(Erickson, 1963). Erickson(1963)은 인생주기를 8단계의 심리사회 발달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발달과업을 제시하면서, 노년기의 성공적인 발달과업이 자아

통합감의 달성이라고 하였다. 즉 죽음을 앞둔 노년기에 자아통합감을 갖는 노인은 지나온 세월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나 회한을 갖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절망에 빠진 부적응적인 노인은 직업 등에서의 역할상실, 경제적 어려움, 시대적 역경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한다(최정훈 외 5인, 1993: 239). 선행연구에서 노년기의 통합감을 달성한 사람의 경우는 성숙함을 보이며, 과거의 생활유형을 수용하고 평온해 하며 자아실현을 기꺼이 계속하여 죽음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산초, 최영희, 1990: 70-77).

자아통합감의 측정은 대체로 전체문항을 합한 값으로 하거나(김안젤라, 2004; 김정순, 1988; 류정란, 2003; 오상현, 2001), 차원으로 분류하여 제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조사하였다(류정란, 2003). 한편 우리나라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많은 연구(류정란, 2003; 양영순, 2004; 오상현, 2001)들이 김정순(1988)이 개발한 자아통합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김정순(1988)의 자아통합감의 내용은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 노령에 대한 수용,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 등 6개 차원의 내용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측정도 김정순(1988)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통합감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인구통계적 변인이나 건강변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자아통합감의 직접적인 명칭과 그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변인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많았다. 김미혜, 유영주(1999)는 생활만족도를 사기, 행복도, 노후적응, 심리적 복지와 같이 성공적인 노화를 설명해 주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우리 나라 노인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여성노인들의 신체적 건강문제, 경제적 빈곤문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무엇보다도 생활만족도 및 생활의 질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 김영미, 유영주(2001)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학력이 높고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중돈, 조주연(2000)은 우리 나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서구 노인들의 만족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지만 위험군 노인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교육정도, 일상생활동작

능력, 경제활동 참여여부, 경제생활의 애로정도, 주거 편이도,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 친구 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임을 밝혔다. 배영숙(1993)은 자아통합감을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종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자아통합감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았다. 또한 동거하는 가족이 많고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았다. 김주성의 연구(1999)에서 보면 자아통합감은 남자가 여자보다, 배우자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더 높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았다. 이미화의 연구(1995)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아통합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월수입과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았으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현의 연구(1998)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대도시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노인일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감에 대한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 활동변인과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활동 등은 유의한 영향을 주어, 능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이 긴 노인일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순, 1988; 류정란, 2002; 오상현, 2001). 또한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일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았고(김옥현, 1998; 박민애, 2001),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정란, 2003). 김주성의 연구(1999)에서 노인의 자아통합감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며, 정서상태가 안정되고 경제상태가 좋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았다.

자아통합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김안젤라(2004)는 집단미술치료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회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자아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영순(2004)은 인터넷활용과 자아통합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인터넷활용노인이 비활용노인보다 자아통합감이 더 높게

나타나 인터넷의 사용이 자아통합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자아통합감은 노인의 사회활동, 성격변인, 건강상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긍정적인 노년기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유용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 2. 노년기의 외모행동, 건강상태 및 인구통계적 특성

신체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그 사람의 성별, 인종, 대략의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직업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Cash & Pruzinsky, 2000). 특히 노년기의 경우 외관만으로도 노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노년기의 일반적인 신체특징은 눈꺼풀, 입, 턱 주위의 주름, 건조한 피부, 소양증과 피부나설의 증가, 과다색소 침착, 흰색이나 회색과 가늘어지는 머리카락 등이다(대한노인병학, 2000: 22-24).

대체적으로 노인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가치감이 다른 기준보다 변화된 외모에 의해 더 좌우되고 그로 인해 자기가치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Troll, 1975: 45-67). 그리하여 노년기의 외형적인 신체적 변화와 건강 면에서의 신체변화는 노인 의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aum과 Boxley(1983)는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신체적 변화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젊어 보이기 위해 의복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Chowdhary(1988)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는 주어진 대상이기 보다는 만들어가는 대상이므로 적절한 의복착용은 노인의 외모와 자존심을 고양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외모관리 및 적절한 의복사용은 감소된 노년기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신체적 변화에 따른 매력감소를 의식하여 바람직한 인상형성을 하는 매력증가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인자, 1984: 292-344). 이렇게 노년기 여성이 의복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심리적 근거로 들 수 있는데, 의복이 무언의 전달체로서 착용자의 자존심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ader, 1983; Chowdhary, 1988).

선행연구에서도 외모행동은 노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노인

은 외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을 하는 노인일수록 외모에 관심이 높았다(정희용, 1987; Ryan, 1966: 241-317). 또한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의복생활에 만족하고 의복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박미애, 1987). 의복관심과 용돈은 노년기 여성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이명희, 이은실, 1997).

이원진(2003)의 연구에서 노년기 여성은 화장의 전반적인 효용성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화장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이나 사회적 관계의 적극성이 매우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 후의 자기 가치감은 외모의 변화를 통해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복 및 외모행동과 관련하여 자아통합감의 내용인 생활만족도변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진구, 이유경(1995)은 노년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고 용돈의 액수가 높고 직업이 있는 경우가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생활만족도와 외모변인과는 높은 상관을 보여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관리성, 동조성, 의복의존성, 의복중요성, 유행무관심성, 정보탐색 및 구매계획성 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여성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가 높아지며(유경숙, 1984), 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의복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 1996). 김순구(1993)는 건강하고 월의복지출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생활만족도는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제 변인과의 관계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의복행동참여도가 높았고(김순구, 1993), 학력이 높고 용돈지출이 많을수록 신체장식 및 의복관심도가 높았다(이명희, 이은실, 1997).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외모변인 및 인구통계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자아통합감에 외모변인이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노년기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장식행동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최근 노인들의 건강이 양호해지고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

고 있어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외모관련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자아통합감이 노년기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서 노년기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외모변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즉 선행연구에서 실제적으로 자아통합감이라는 명칭으로 외모변인과 관련한 연구는 없지만 선행연구(박미애, 1987; 이명희, 이은실, 1997; 김진구, 이유경, 1995; 정희용, 1987)에서 자아통합감의 내용, 즉 생활의 만족감, 자신감, 긍정적인 자아평가와 같은 내용으로 의복 및 외모변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내용을 위의 내용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생활의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자아상과 같은 내용은 자아통합감의 내용으로서 외모관련 변인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의 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그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자아통합감, 외모행동, 건강상태, 인구통계적 변인이었다.

자아통합감의 측정도구는 김준순(1988)이 개발한 자아통합감 측정도구 3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아통합감의 31개 문항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노년기 여성에게 실시할 설문문의 양이 적당한지와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예비조사 결과 31개 문항 6개 차원의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죽음에 대한 수용', '노령에 대한 수용', '지나온 일상에 대한 수용'에 관한 차원의 신뢰도가 .25, .29, .34로 그 수치가 낮은 편이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이 3개 차원의 문항을 제외한 3개 차원 즉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8문항)', '지혜로운 삶(7문항)', '생애에 대한 태도(6문항)'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5점 Likert형으로 하였고, 21개 문항 중 '생애에 대한 태도'의 1개 문항이 내적일치도와 신뢰도가 낮아 제외하였다. 3개 변인의 Cronbach의 신뢰도는 .83, .73, .72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외모행동은 외모관심 및 화장의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즉 외모관심은 '외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로 5단계 평점법으로 측정하였다. 화장은 화장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다'에 1점, '기초화장(스킨과 밀크로션)에 2점, '기초화장에 파운데이션 및 파우더, 입술화장, 눈썹화장 중 한 가지 색채화장'에 3점, '기초화장에 두 가지의 색채화장시' 4점, '기초화장과 전체적인 색채화장'을 하였을 때 5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외모행동은 화장하는 정도와 외모관심의 2개 문항을 합하여 평균값으로 측정하였고, 2개 문항의 신뢰도는 .76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강상태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로 5점 평점법으로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여부를 조사하였다.

### 2.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03년 9-10월에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진주시 및 진주시 근교에 거주하는 60-79세의 노년기 여성 11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질문지에 응답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였다. 대상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피하여 대형마트, 시장, 노인대학, 보건소, 공원 등을 중심으로 임의 표집을 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을 피험자에게 읽어 주고 조사자가 대답을 설문지에 기록하는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연령은 60대가 63.0%, 70대가 37.0%였다. 학력은 무학이 22.6%, 서당 및 초등학교 졸업이 33.9%, 중졸이 14.8%, 고졸 이상이 28.6%였다. 배우자 동거여부는 배우자와 동거는 53.9%, 이혼 혹은 사별은 46.1%였다. 한달 용돈은 10만원 미만이 36.5%, 10-15만원 미만이 33.1%, 20만원 이상이 30.4%의 분포를 보였다.

### 3. 자료분석방법

통계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Cronbach의 신뢰도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공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노년기 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 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

노년기 여성의 연령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t-검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연령에 따라 화장과 자아통합감 중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60대가 70대보다 화장과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노년기가 화장을 더 많이 하며,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고자 하며, 생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높은 연령층이 낮은 연령층에 비해 사회활동도 적고, 신체로 인한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을 통제한 후 교육정도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공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노년여성의 경우 과거 사회경제적 여건상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보고 본 조사에서 순수하게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령을 통제하였다.

<표 2>에서 모든 변인이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졸 이상의 집단이 그 이하의 집단보다 외모관심, 화장이 더 높았다. 자아통합감의 경우 현

<표 1> 노년기 여성의 연령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 (N=116)

		연령	60대 (n=72)	70대 (n=44)	t
외모행동, 자아통합감					
외모 행동	외모관심		3.02	2.45	1.91
	화장		3.15	2.59	2.97**
자아 통합감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3.36	3.14	1.79
	지혜로운 삶		3.70	3.33	3.43**
	생에 대한 태도		3.44	2.94	3.56**

\*\*p<.01

<표 2> 연령통제 후 교육정도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공변량분석

(N=116)

변량원	df	외모행동		자아통합감			
		외모관심	화장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	
		F	F	F	F	F	
연령(공변인)	1	2.96	.23	.97	8.37**	6.72*	
교육정도	3	10.64**	15.33**	4.69**	2.89*	5.11**	
오차	110						
독립변인	속성	n	m	m	m	m	
교육 정도	무학	26	1.96(c)	1.62(c)	2.98(c)	3.36(b)	2.75(b)
	한문서당 및 초등졸	40	2.73(b)	2.70(b)	3.16(bc)	3.48(b)	3.20(a)
	중졸	18	3.22(a)	3.67(a)	3.38(ab)	3.56(b)	3.52(a)
	고졸 이상	32	3.33(a)	3.91(a)	3.59(a)	3.83(a)	3.56(a)
계		116	2.80	2.94	3.28	3.56	3.25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표 3> 노년기 여성의 배우자 여부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

(N=117)

		배우자 여부		t
		배우자 있음 (n=63)	배우자 없음 (n=54)	
외모 행동	외모관심	3.03	2.83	.69
	화장	2.91	2.69	1.16
자아 통합 감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3.34	3.20	1.12
	지혜로운 삶	3.66	3.45	1.95
	생에 대한 태도	3.43	3.04	2.73**

\*\*p<.01

재생활에 만족과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는 고졸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았고, 생에 대한 태도는 무학집단이 가장 낮아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화장과 같은 장식행동, 자아통합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 여성의 배우자 여부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t-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배우자 여부에 따른 외모관심, 화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통합감 중 생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생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여부에 따른 자아통

합감과 외모행동의 차이에 대한 결과에서 연령이 60대가 70대 보다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의 자아통합감과 화장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자아통합감과 외모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여부에 따른 외모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통합감에서는 생에 대한 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생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자아통합감이 높다고 한 류정란(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장식 및 의복관심도가 높다고 한 이명희, 이은실(1997)의 연구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복행동관여도가 높다고 한 김순구(1993)의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

## 2. 노년기 여성의 건강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

노년기 여성의 건강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노년기 여성의 건강에 따라 외모관

- 1) 건강은 원래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주 나쁘다'와 '나쁘다'를 합쳐 '나쁘다'로 '아주 건강하다'와 '건강하다'를 합쳐 '건강하다'로 하여 나쁘다, 보통이다, 건강하다는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 노년기 여성의 건강에 따른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 (N=115)

		건강	나쁘다 (n=29)	보통 (n=46)	건강하다 (n=40)	F
외모행동	외모관심		2.35(b)	2.83(a)	3.10(a)	4.98**
	화장		2.07(b)	3.13(a)	3.35(a)	6.92**
자아통합감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2.78(c)	3.30(b)	3.60(a)	17.56**
	지혜로운 삶		3.14(b)	3.67(a)	3.75(a)	12.30**
	생에 대한 태도		2.60(b)	3.42(a)	3.51(a)	17.64**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심, 화장 및 자아통합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이 보통 이상의 노년기 여성이 외모관심, 화장 및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가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움직임이 비교적 좋아 사회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활동 및 신체적 건강은 질적인 삶과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정순, 1988; 배영숙, 1993)에 의해 지지되었다.

3. 노년기 여성의 자아통합감과 외모행동, 인구통계적 변인

1) 단순상관관계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변인을 대상으로 단순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각 변인들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표 5〉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N=117)

변인	연령	교육정도	건강
교육정도	-.205*		
건강	-.162	.326**	
외모행동	-.162	.561**	.326**

\*p<.05, \*\*p<.01

계를 나타내었다. 먼저 연령은 교육정도와 부적 상관이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건강상태, 외모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으며 외모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외모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외모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노년기 여성의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여부, 건강, 외모행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한편 독립변인 중 배우자 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1점, 이혼, 별거 혹은 사별을 0점으로 하여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문제되므로 독립변인이 어느 정도 서로 독립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하였다. D-W계수가 전체적으로 1.57-1.85의 범위로서, 이것은 1-4의 범위에서 2에 가까우므로 만족할만하여 다

〈표 6〉 자아통합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Overall F	
자아통합감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건강	.324	.421	5.06**	R <sup>2</sup> = .297 F=23.86**, df=2/111 C=1,948
		교육정도	.132	.237	2.85**	
	지혜로운 삶	건강	.194	.283	3.28**	R <sup>2</sup> = .289 F=15.05**, df=3/111 C=4,505
		연령	-.028	-.248	-3.03**	
생에 대한 태도	외모행동	건강	.284	.311	3.82**	R <sup>2</sup> = .357 F=20.69**, df=3/112 C=4,577
		연령	-.040	-.270	-3.50**	
		외모행동	.183	.277	3.40**	

\*\*p<.01, C=Constant



〈표 7〉 외모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Overall F
외모행동	교육정도	.498	.500	6.25**	R <sup>2</sup> = .349 F=30.22**, df=2/113 C=.796
	건강	.266	.192	2.40*	

\*p<.05, \*\*p<.01, C=Constant

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서의훈, 2002: 157; 조복희, 1992: 223).

자아통합감의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건강, 교육 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며(beta=.421/.237), 2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9.7%였다. 즉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건강상태가 좋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로운 삶은 건강, 연령, 외모행동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며(beta=.283/-.248/.241), 설명력은 28.9%였다. 즉 건강상태가 좋고, 연령이 낮으며, 외모행동이 높을수록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생에 대한 태도는 건강, 연령, 외모행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beta=.311/-.270/.277), 3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5.7%였다. 즉 건강상태가 높고, 연령이 낮으며, 외모행동이 높을수록 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적으로 외모행동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외모행동은 교육정도와 건강상태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며(beta=.500/.192), 2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4.9%였다. 즉 교육정도가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외모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서 노년기 여성의 건강, 연령, 외모행동은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건강상태는 자아통합감의 3개 변인과 외모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어 노년기에서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활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의복생활에 만족한다고 한 선행연구(박미애, 1987)와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외모에 관심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정희용, 1987; Ryan, 1966)에 의해 지지

되었다. 한편 외모행동은 지혜로운 삶과 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어,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노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통합감 및 외모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건강에 따른 자아통합감 및 외모행동의 차이를 조사하며, 자아통합감에 외모행동, 건강상태, 인구통계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여성의 연령에 따라 화장과 자아통합감 중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60대가 70대보다 화장과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여성의 교육정도에 따라 외모행동 및 자아통합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장식행동, 자아통합감이 더 높았다. 배우자 여부에 따른 외모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아통합감 중 생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기 여성의 건강에 따라 외모관심, 화장 및 자아통합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의 노년기 여성이 외모관심, 화장 및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통합감의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건강, 교육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아,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건강상태가 좋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아

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로운 삶은 건강, 연령, 외모행동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고, 연령이 낮으며, 외모행동이 높을수록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였다. 생에 대한 태도는 건강, 연령, 외모행동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아, 건강상태가 높고, 연령이 낮으며, 외모행동이 높을수록 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행동은 교육정도와 건강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아, 교육정도가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외모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노년기 여성은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건강할수록 외모관심이나 장식이 높으며,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행동은 자아통합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외모관심이나 장식행동이 높을수록 자신의 현재 삶이 지혜롭고 긍정적인 생의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노년기의 경우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잘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을 찾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의 건강과 외모관리는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보편적인 행동으로서, 노인복지를 위한 각 기관이나 센터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외모 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노인복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점은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 화장의 외모행동과 건강상태에 대해 각각 1문항씩의 적은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아 본 연구의 중요변인으로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더 타당도가 있는 외모행동과 건강상태의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진주시와 진주 근교에 거주하는 노년기 여성에게 국한시켰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고, 노년기 남성에게도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미혜, 유영주(1999).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헌고찰: 1990년대 문헌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3(1), 47-56.
- 김순구(1993). 노인 및 노인집단의 인구통계적·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젤라(2004). 회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 153-179.
- 김영미, 유영주(2001).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원주시 노인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5(1), 15-28.
- 김옥현(1998). 노인의 성격유형, 자아통합감과 노화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연구. *순천청암대학 논문집*, 22(2), 33-55.
- 김정순(1988).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성(1999).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 연구논문집*, 26(1), 259-277.
- 김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1996).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내 거주 노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1), 57-74.
- 김진구, 이유경(1995).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 연구. *복식문화연구*, 3(2), 347-370.
- 대한노인병학회(2000). *노인병학*. 서울: 의학출판사, 22-24.
- 류정란(2002).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애(1987). 노년여성의 신체적 자아 및 생활만족도와 의복태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애(2001). 입원노인의 성격유형 및 건강상태와 자아통합감과의 관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호(1984).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지각과 태

- 도.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435-440.
- 배영숙(1993).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 5(1), 13-18.
- 서의훈(2002). SPSS통계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157.
- 양영순(2004). 인터넷 활용만족도가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상현(2001).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자아통합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이은실(1997).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외류학회지*, 21(6), 1072-1081.
- 이미화(1995). 노인의 건강통제위 성격과 자아 통합감에 관한 연구.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 20, 291-306.
- 이원진(2003). 노인여성의 화장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1984).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292-344.
- 임치경(1984).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산초, 최영희(1990). 노인간호학. 서울: 수문사, 70-77.
- 전재일(1979). 노인으로서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 1-23.
- 정희용(1987).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1992). 가정학 연구방법론. 서울: 교문사, 223.
- 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1996). 인간행동의 이해: 심리학. 서울: 법문사, 239.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갤럽조사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 조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Bader, I. M. (1963). An Exploratory Study of Clothing Problems and attitude of Group of Older Women in Iowa City. *Aging Life to Years*, 10, Supplement, No.10, 3-6.
- Baum, S., & Boxley, R. (1983). Age Identification in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532-537.
- Birren, J. E., & Cunningham, W. R. (1989). *Research on Psychology of Aging. in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3-34.
- Cash, T. F., & Pruzinsky, T. (2000). 바디이미지. 임숙자, 이승희, 이미현, 신효정(역). 서울: 교문사, 41-57.
- Chowdhary, U. (1988). Self-esteem, Age Identification, and Media Exposure of the Elderly and Their Relationship to Fashiona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1), 23-30.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Ed.). New York: Norton.
- Havighurst, R. J. (1977).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Let's learn about Aging: a book of reading*, Barry J. R. & Wingrove, C. R.(eds.). New York: Schenkman Publishing Co., 139-148.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241-317.
- Troll, L. E. (1975). *Early and middle adulthood: The best is yet to be-maybe*. California: Books Cole Publishing Co., 45-67.

(2005년 9월 5일 접수, 2005년 11월 27일 채택)